
**ASEAN 지역 FTA 확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2004. 3

K O T R A

목 차

I . ASEAN의 市場 規模 및 交易 構造1

1. 市場 規模 / 1
2. 交易 構造 / 1
3. 市場 特性 및 輸出 與件 / 3

II . 우리나라와의 交易·投資 與件5

1. 交易 現況 / 5
2. 投資 現況 / 9

III . ASEAN의 FTA 推進 現況11

1. ASEAN 域內 統合 推進 現況 / 11
2. ASEAN의 域外國과의 FTA 推進 現況 / 12

IV . ASEAN FTA 擴散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15

- 日本, 中國 등 域外國家와의 FTA 締結 위주 檢討

1. 日本, 中國과 우리나라의 ASEAN 市場에서 競爭 關係 / 15
2. 日本, 中國과 ASEAN의 FTA 締結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影響 / 22

V . 對應 戰略28

1. 對應 必要性 / 28
2. 對應 戰略 / 29

1. 아세안의 시장 규모 및 교역 구조

1. 시장 규모

□ 5억 3천만 거대 시장

- 2002년 현재, ASEAN은 인구 수 기준 우리나라의 약 11배에 달하는 거대 시장 보유

□ 2002년 기준, ASEAN의 GDP 규모는 6,100억 달러로 우리나라의 약 1.2배

-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를 중심으로 지속 성장하고 있는 역동적 신흥 시장

- 2003년 3.9% 성장에 이어 2004년 4.9% 성장 전망

<주요 시장과의 경제 성장률 비교>

(단위 : %)

구분	아세안	중국	중남미	OECD
2003년	3.9	7.3	1.1	1.9
2004년	4.9	7.6	3.6	3.0

자료 : IMF, OECD, ADB

2. 교역 구조

□ 교역 규모 역동적 성장 중

- 2002년 현재 ASEAN 국가의 총 교역량은 7,580억불로 세계 교역의 5.9% 차지, 우리나라 교역 규모(3,146억불)의 약 2배
- ASEAN 교역 규모는 1993년 4,299억 달러에서 2002년 7,580억 달러로 76% 증가하는 등 역동적으로 성장 중

□ 미국, EU, 일본, 중국, 한국 등이 주요 교역국

▶ 수출

- 미국이 ASEAN 총 수출의 18.5% 차지하여 ASEAN 최대 수출 시장이고, EU(13.3%), 일본(12.1%) 순
-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167억 달러로 총 수출 중 4.1% 차지
- 한편, 최근 5년 동안 ASEAN의 대 중국 수출은 무려 227%나 증가하여, 중국은 ASEAN의 중요 수출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
- 최근 5년간 ASEAN의 대 한국 수출 증가율 : 108%

▶ 수입

- 일본은 2002년 현재 ASEAN 수입 시장의 15.9%를 점유, 1위를 기록, 일본에 이어 미국(11.6%), EU(9.9%), 중국(9.1%)이 ASEAN의 주요 수입국
- 우리나라의 ASEAN 수입 시장 점유율은 5.1%에 불과

□ 주요 교역 품목은 전기·전자, 기계류로 우리나라와 비슷

- ASEAN에 따르면, 주요 교역품목은 전기·전자, 기계류인데, 동 품목의 수출은 1,871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50.5% 점유하며, 수입은 2001년 현재 1,517억불로 전체 수입의 47.7% 차지
- 그 외 광물, 섬유 및 의류 등을 주로 수출하고, 광물, 화학제품, 자동차류를 주로 수입
- 특히, 자동차류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바(2001년 전년 대비 증가율 : 17.7%), 이 지역 자동차 산업 발전 단계 고려 시, 앞으로도 수입 증가 예상

< 아세안 주요 8개국의 품목별 수출 비중 >

(단위 : 천불)

구분 (HS CODE)	품목명	수출		수입	
		2000	2001	2000	2001
1-5	산 동물	5,970,249.80	5,866,440.20	4,118,077.90	4,489,574.40
6-14	채소류	5,282,797.60	4,696,356.40	5,860,559.90	5,397,722.00
15	유지	5,732,860.30	5,274,911.00	592,888.80	604,588.60
16-24	가공식품류	9,286,937.70	9,539,502.80	6,554,814.70	7,140,996.60
24-27	광물	42,601,786.20	40,978,895.00	40,048,911.10	37,552,469.90
28-38	화학제품	15,622,724.30	15,563,893.60	23,378,743.80	22,246,053.80
39-40	플라스틱 제품	16,077,472.70	14,834,156.30	12,550,782.50	10,944,160.70
41-43	가죽류	1,918,458.80	1,835,178.40	1,219,338.80	1,227,712.60
44-46	나무 및 목제품	8,742,053.90	7,640,385.00	1,289,321.40	1,203,163.00
47-49	종이류	5,785,825.40	5,336,071.30	5,705,696.10	4,834,345.70
50-63	섬유 및 의류	23,357,675.40	22,093,079.20	11,677,298.10	11,103,916.40
64-67	신발	3,172,290.50	2,949,023.50	606,762.60	537,098.00
68-70	석면/시멘트/세라믹	2,604,062.00	2,450,434.90	2,390,810.30	2,114,228.60
71	신변장식용품	4,162,095.10	4,345,289.70	4,657,221.50	4,670,937.40
72-83	철강 및 철강 제품	10,821,616.70	9,867,236.50	22,105,458.60	20,532,920.30
84-85	기계류, 전기/전자 제품	219,512,897.90	187,177,055.20	172,413,581.50	151,173,814.80
86-89	자동차류	7,172,612.20	7,281,450.70	14,477,210.40	17,038,619.90
90-92	광학 제품, 악기류	8,327,585.20	8,756,836.60	10,629,797.10	8,981,457.20
93	무기	11,864.30	22,345.30	43,078.80	41,491.40
94-96	잡제품	7,040,776.60	6,196,004.30	2,572,882.30	2,222,313.00
97-98	공예품	5,131,734.90	5,538,624.00	2,446,106.90	2,588,290.40
기타	기타	2,357,402.10	2,304,806.40	487,828.80	579,695.20
총계	총계	410693779.6	370547976.3	345,827,171.90	317,225,570.00

자료원 : ASEAN

주 : 음영 부분은 주요 수출입 품목

3. 시장 특성 및 수출 여건

□ 다국적 기업의 조립 산업 기지

- ASEAN 지역은 대부분 ①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해외 다국적 기업들의 조립산업기지로서 역할, ② 풍부한 천연 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해외 기업들의 투자 대상지로서 역할 담당

□ 공산품 수출 시, 다국적 기업과 경쟁

- 이러한 관계로 농산물, 광석 등 1차 상품을 제외한 일반 공산품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 ASEAN 수출 업체는 현지 업체와의 경쟁 보다는 현지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과의 경쟁에 직면
- 일본 기업은 일찍부터 ASEAN에 진출, 현지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혔을 뿐 아니라,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이들 기업들은 AFTA 기업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역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다른 역내국으로 판매하고 있는바, 이러한 추세는 일본 기업 뿐 아니라 유럽계 다국적 기업들에서도 강화되고 있음
- ASEAN에 진출한 대표적 다국적 기업에는 덴소, 마쓰시타, 도요타, 혼다, 볼보, 소니, 네슬레, 미쯔비시, 히타치, 닛산, 포드 등이 있는바, 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 전자제품 생산업체가 진출

□ 대외 의존형 경제 구조

- ASEAN 경제 구조는 현지 진출 다국적 기업에 필요한 부품, 원자재 그리고 기계류 및 설비 플랜트를 수입하는 대신 조립 생산된 전자 제품, 섬유제품 등을 수출하는 대외 의존형

II. 우리나라와의 교역 · 투자 현황

1. 교역 현황

□ 14년간 무역흑자를 지속하고 있는 효자 시장이나, 흑자 규모 감소

- ASEAN은 우리 나라 총 교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 중 하나. 2003년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보다 교역량이 훨씬 증가했으나, 수출보다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 흑자 규모 감소

- 최근 10년간 수출 증가율 : 61.8%, 수입 증가율 : 135.2%
- 2003년 흑자 규모는 최대치를 기록한 1996년 보다 무려 78.8% 감소

< 우리나라의 대 ASEAN 교역 현황 >

(단위 : 백만불, %)

구분	1994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수출	12,487 (23.5)	20,311 (12.9)	20,365 (0.3)	15,328 (-24.7)	17,708 (15.5)	20,134 (13.7)	16,459 (-18.3)	18,400 (11.8)	20,203 (10.1)
수입	7,847 (7.3)	12,074 (19.1)	12,549 (3.9)	9,135 (-27.2)	12,249 (34.1)	18,173 (48.4)	15,916 (-12.4)	16,757 (-5.3)	18,458 (10.2)
교역량	20,334 (16.7)	32,385 (15.2)	32,914 (1.6)	24,463 (-25.7)	29,957 (22.5)	38,307 (27.9)	32,375 (-15.5)	35,157 (8.6)	38,661 (9.9)
무역 수지	4,640 (65.8)	8,237 (5.0)	7,816 (-5.1)	6,193 (-20.8)	5,159 (-16.7)	1,961 (-64.1)	543 (-72.3)	1,643 (202.6)	1,745 (6.2)

자료원 : KOTIS

주 : 괄호안은 증감율

□ 중국에 ASEAN 시장 잠식 우려

- 한편, ASEAN 수입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은 매년 상승, 1999년 6.7%에서 2002년 9.1%로 상승한바, 3,500억불 ASEAN 수입 시장을 중국에 잠식당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일본의 아세안 시장 점유율은 하락, 우리나라는 4-5%대 유지

<아세안 시장에서 한중일 시장 점유율 변화>

(단위 : %)

	1999	2000	2001	2002
일본	17.7	18.5	16.4	15.9
중국	6.7	7.6	7.4	9.1
한국	4.7	4.6	4.5	5.1

자료원 : WTO, WTA(World Trade Atlas)

- 한편, ASEAN의 우리나라 수입 시장점유율은 지속 상승 추세
- ('97) 7.5% → ('98) 8.6% → ('99) 9.3% → ('00) 9.2% → ('01) 10.7% → ('02) 11.0%

□ 상호보완적 교역 구조

- 우리나라의 대 ASEAN 주요 수출입 품목은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 등이고, 주된 수입 품목은 반도체, 천연가스, 원유, 목재류 등 1차 산업 제품으로, 우리나라와 ASEAN은 산업간 무역의 비중이 큼
- 한편,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컴퓨터, 무선통신기기는 수출 품목인 동시에 주된 수입품목으로 산업내무역(Intra-industry trade) 형태도 나타나고 있음
- ASEAN 지역은 저임 노동력을 이용하기 위한 해외 다국적기업들의 조립산업기지 역할을 하는 관계로 부품, 원자재 등을 수입하는 대신 조립 생산된 전자제품, 섬유 제품 등을 수출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ASEAN 수출 급증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대 ASEAN 수출은 1994년 2억 7천만불에서 2003년 11억 달러로 무려 307% 증가

< 대 ASEAN 20대 수출입 품목 >

(단위 : 천불, %)

대아세안 수출			대아세안 수입		
품목명	금액	증가율	품목명	금액	증가율
합계	20,253,388	10.1	합계	18,458,465	10.2
반도체	3,783,062	15.2	반도체	4,896,357	15.3
컴퓨터	1,534,532	15.1	천연가스	2,271,014	17.5
무선통신기기	1,419,511	25.9	원유	1,761,234	0.1
철강판	789,118	11.6	컴퓨터	1,498,632	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93,349	-2.4	석유제품	685,843	-15.8
합성수지	660,803	17.8	석탄	255,594	36.2
자동차	892,632	43.1	목재류	590,378	-6.2
석유제품	721,157	-27.6	임산부산물	337,203	45
전자관	667,518	2.8	식물성물질	233,536	18
기타직물	422,694	-6.6	정밀화학원료	173,520	77.6
기초유분	166,647	102.7	제지원료	243,311	7
영상기기	287,267	0.5	유선통신기기	171,831	67.6
기구부품	257,033	12.8	기타석유 화학제품	153,071	45.6
편직물	377,546	20	합금철선철 및고철	113,352	111
섬유및화학기계	273,259	30.2	곡실류	149,160	27.3
자동차부품	221,040	62.3	종이제품	180,496	14
플라스틱 제품	289,003	10.7	인조섬유방적사	160,272	-9.1
인조장섬유직물	375,454	-6.3	수동부품	167,983	-5.6
음향기기	281,856	-23.6	무선통신기기	135,172	29.2
형강	85,968	1.2	동제품	247,830	48.2

자료원 : KOTIS

주 : 1. MTI 3단위 기준

2. 2003년 기준

□ 우리나라는 무선통신기기, 전기전자, 화학 섬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음

- 이동통신단말기로 대표되는 무선통신기기는 ASEAN 현지 기업 중 이동통신단말기 생산 업체가 없어, 다국적 기업들이 외부에서 생산한 단말기를 공급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ASEAN에 비해 큰 우위 차지
- 또한, 전기 전자 산업에서 현지 기업 생산 비중은 매우 낮은 대신, ASEAN 진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데, 최근 우리나라의 현지 진출 기업의 적극적 마케팅 활동 등으로 비가격 경쟁력이 크게 향상되었음
- 세부 품목별로 우리 기업은 PDP 텔레비전, LCD 텔레비전, DVD 플레이어 등 디지털 가전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보이고 있음
- 한편, ASEAN에서 자체 생산되는 섬유사 및 직물류는 가격은 저렴하지만 아직 품질이 낮아 우리나라 제품이 우위를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 제품은 특히 화학섬유 분야에서 강한 품질 경쟁력을 보이고 있음
- 특히, ASEAN은 각종 장벽을 통해 자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고 있으나, 이 지역 자동차 산업은 아직까지 단순한 조립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황

□ 한편, 농산물, 수산물은 ASEAN이 우위를 보임

- 농산물은 ASEAN과의 FTA 체결시 최대 민감 분야 중 하나로, ASEAN은 특히 과일류에 강한 경쟁력 보유
- ASEAN 대부분이 열대 지방에 위치, 두리안(태국, 말련 등), 망고(태국, 말련 등), 용과(베트남) 등과 같은 열대 과일이 풍부하고 절대적 경쟁력 보유

- 다만, 배, 단감 등 품목은 우리나라 제품이 경쟁력 보유
- 우리나라의 대 ASEAN 농산물 수입은 2003년 기준 약 6억불로 총 ASEAN 수입 중 농산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3.3%. 반면, 수출은 2003년 기준 약 1억불로 수입액이 수출액의 6배에 달함
-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등 대부분의 ASEAN 국가들은 섬이거나 바다와 접하고 있어 수산물이 풍부하며 냉동수산물의 경우 경쟁 우위 차지

2. 투자 현황

(1) 우리나라의 ASEAN 투자 진출 현황

□ 우리나라의 ASEAN에 대한 투자진출은 1987년 이후 본격화

- 금액기준 대 ASEAN 투자진출은 1997년 6.2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002년까지 해마다 감소하였으나, 2003년 상승세 회복
- 반면, 건수기준 대아세안 투자진출은 1994년 275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대체로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3년에는 217건까지 회복
- ASEAN에 대한 투자가 1998-2002년까지 약세를 기록한 것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기업의 투자여력 상실, ASEAN 자체의 정치혼돈 지속, 중국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선호도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 우리나라의 대 ASEAN 투자 현황 >

(단위 : 천불, %)

연도	1994	1997	1999	2000	2001	2002	2003	Total ('82' 03)
건수	275	173	114	183	191	261	217	2,515
금액	257,235	616,319	464,162	463,679	372,783	314,805	501,836	5,991,985

자료원 : 한국 수출입 은행

주 : 투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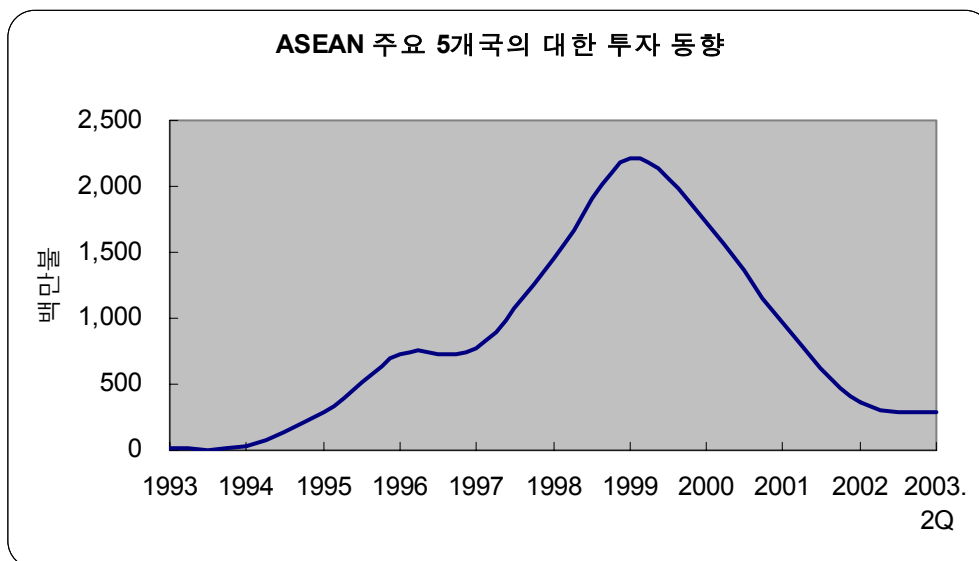
□ 최근 베트남에 대한 투자진출 활발

- 미-베 무역협정 발효(2001년 12월 발효) 이후 우리나라 기업의 대베트남 투자진출이 급증, 2년간 투자액이 무려 196% 증가
- 2001년 48건 4,600만불을 투자한데 이어 2003년에도 91건에 약 1.35억불 투자

(2) ASEAN의 대한 투자 현황

□ 1999년 이후 감소세

- ASEAN 주요 5개국(인니, 말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대한 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급속도로 증가, 1999년 약 22억 달러로 최고조에 달하였다가 1999년 이후 감소하여 2002년 현재 3억 5천만 달러 수준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총 FDI 유치 금액 중 ASEAN 차지 비중도 1999년 14%에서 2003년 약 4%로 감소함



자료원 : 산업자원부

주 : 신고 금액 기준

Ⅲ. ASEAN의 FTA 추진 현황

1. ASEAN 역내 통합 추진 현황

□ 1967년 ASEAN 출범

- 1967년 동남아 국가들의 공동안보를 모색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목적에서 결성
- ASEAN 선발 6개국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브루나이, 싱가포르, 필리핀
- ASEAN 후발 4개국 :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 1992년 아세안자유무역지대(AFTA ; ASEAN Free Trade Area) 발족

- ASEAN 6개국이 EU, NAFTA 등 경제 블록화 심화에 대응 위해 발족
- ASEAN은 1992년 최초 6개 회원국이 1993년부터 관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 선발 6개국은 2010년까지 일부 민감 품목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고,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
- ASEAN 선발 6개국의 평균 역내 관세율은 1993년 12.76%에서 2002년 2.39%로 대폭 인하됨

□ ASEAN 경제 공동체(ASEAN Economic Community) 설립 결의

- 2003년 10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담 시, 2020년까지 역내 단일 시장(single market)을 설립하기로 결의
- 이에 따라 관세, 비관세 장벽 철폐 뿐 아니라, 인력 자유화, 거시 경제 및 금융 정책, 인력 개발에서의 협조 강화 등을 포함한 포괄적 개방화 및 협력을 추진, 역내 통합 진전 전망

2. ASEAN의 역외국과의 FTA 추진 현황

가. ASEAN 차원에서의 FTA 추진 현황

□ ASEAN-중 FTA

- '02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향후 10년 이내에 ASEAN-중국간 FTA를 출범시키기로 합의
 - 중국은 2004년부터 ASEAN 국가들의 농산물 관세 인하
- ASEAN-중국간 FTA 창설은 인구 17억, GDP 2조 달러, 무역 규모 1.2조 달러의 세계 최대 단일 시장 창설 의미

□ ASEAN-일 FTA

- 최근 중국의 공세적 대 ASEAN 접근에 자극받아 ASEAN과의 협력 심화 방안 모색 중
 - 2002년 11월 FTA 요소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정에 서명하고, 10년 내 합의 사항 이행을 완료기로 함
- 최근 FTA를 타결한 멕시코, 정부 협상 중인 한국에 이어 일본의 초점은 ASEAN으로 옮겨가고 있음
 - '03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ASEAN 정상들과 포괄적 경제협력 방안(CEP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에 서명, 2004년부터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고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협상을 개시기로 합의

□ ASEAN-인도 FTA : FTA 창설 공식 합의

- 2002년 11월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아세안과 인도는 FTA 창설기로 공식 합의
- '03년 「ASEAN+3」 정상회의에서 인도와 ASEAN은 “포괄적 경제 협력을 위한 기본 협정” 체결
- 2004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관세 인하 실시

나. ASEAN 개별 국가 차원에서의 FTA 추진 현황

국가	기체결	협상 중	검토 중
말레이시아	◦ AFTA(1992)	◦ 일본(2004)	-
미얀마	◦ AFTA	◦ BIMSTEC(2017)	-
싱가포르	◦ AFTA(1992) ◦ 뉴질랜드(2001) ◦ 일본(2002) ◦ EFTA(2003) ◦ 호주(2003) ◦ 미국(2004)	◦ 한국(2004) ◦ 멕시코 ◦ 캐나다 ◦ PACIFIC THREE(2004.11) ¹⁾ ◦ 인도(2004-2005) ◦ 요르단(2004-2005)	◦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 AFTA(1992)	-	-
태국	◦ AFTA(1992) ◦ 인도(2004.3 발효)	◦ 일본(2004) ◦ 중국(2004-2005) ◦ 페루(2005) ◦ 호주(2004) ◦ BIMSTEC(2017) ²⁾	◦ 미국(협상 개시 예정)
필리핀	◦ AFTA(1992)	◦ 일본(2004-2005)	-

주 : 1) PACIFIC THREE :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2) BIMSTEC : 부탄, 인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네팔, 방글라데시

3) 괄호안은 체결 시기 및 체결 예상 시기

□ ASEAN 개별국가의 FTA 추진 정책 개요

- 싱가포르는 FTA 허브국을 지향, 전방위적 FTA 추진 중
- 아시아 통화위기 이후, 종래의 ASEAN 역내 협력을 우선하는 자세에서 선회, ASEAN 국가 중 역외국과의 FTA를 가장 많이 체결(2004년 2월 현재 8개국)

- 태국은 지역주의 강화 등 무역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개별국간 FTA 추진에 매우 적극적 입장 견지
 - 2004년 내 일본, 호주 등 2개국과의 FTA 추가 체결 전망
 - 태국 제 2 수출국인 미국과도 FTA 합의 개시 예정(2004년 6월)
- 말레이시아는 종전 ASEAN 우선 입장에서 전환, 일본과 FTA 협상을 진행하는 등 개별국 차원에서 양자간 협상도 병행
- 반면, 인도네시아는 ASEAN 역내 협력 강화를 우선시
 - ASEAN 역내국간 AFTA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노력보다 개별 국가간 FTA 체결에 더욱 적극적인 싱가포르에 대해 비판적 입장 유지

IV. ASEAN 지역 FTA 확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일본, 중국 등 역외국가와의 FTA 체결 위주 검토

1. 일본, 중국과 우리나라의 ASEAN 시장에서 경쟁 관계

(1) 한, 중, 일의 주요 ASEAN 국가 수출 규모 및 점유율 비교

< 한, 중, 일의 주요 ASEAN 국가 수출 규모 >

(단위 : 백만불, %)

	한국		중국		일본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인니	2,321.80	1,646.7 (-29.1)	1,518.0	2,427.3 (59.9)	8,252.30	4,409.3 (-46.6)
말련	4,072.66	4,231.4 (3.9)	2,235.42	6,177.42 (176.3)	17,336.65	14,186.69 (-18.2)
싱가포르	4,171.27	4,963.82 (19.0)	5,697.63	11,083.96 (94.5)	18,491.58	15,411.42 (-16.7)
필리핀	2,182.03	2,579.42 (18.2)	871.594	1,231.22 (41.3)	7,414.22	6,955.37 (-6.2)
태국	1,496.42	2,914.25 (94.8)	1,822.11	6,056.41 (232.4)	10,178.81	18,235.19 (79.1)
총합	14,244.18	16,335.58 (14.7)	12,144.75	26,976.2 (122.1)	61,673.57	59,197.97 (-4.01)

자료원 : WTA(World Trade Atlas)

주 : 1. 괄호 안은 1997년 대비 증감을

2.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싱가포르는 1999-2003, 태국은 1998- 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

□ 우리나라 수출 약진, 중국 수출 급격히 증가, 일본 수출 감소

- 조사 기간 동안 우리나라의 대 ASEAN 주요국 수출은 14.7% 증가한 반면, 중국은 122.1% 증가하여 2002년에는 총 수출 규모면에서 우리나라를 앞지름

- 한편 일본의 대 아세안 주요국 수출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3국 중 수출 규모는 단연히 앞섬

- 일본의 수출 규모는 우리나라의 3.6배, 중국의 2.2배

□ 일본은 싱가포르를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의 최대 수입국

- 일본의 ASEAN 주요 5개국 수입 시장 점유율은 1997년에 비해 감소했으나, 한, 중, 일 3개국 중 유일하게 2자리 수 시장 점유율 유지하면서 인니, 말련, 필리핀, 태국에서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 한편 중국의 대 ASEAN 수출이 급증하여, 초기에는 중국의 싱가포르 수입 시장 점유율만이 우리나라 점유율을 능가하였으나, 2002년에는 필리핀을 제외한 4개국에서 수입 시장 점유율이 우리 나라 점유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한, 중, 일의 주요 ASEAN 국가 수입 시장 점유율 >

(단위 : %)

	한국		중국		일본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인니	5.6	5.3	3.6	7.8	19.8	14.1
말련	5.2	5.3	2.8	7.7	21.9	17.8
필리핀	6.1	7.7	2.4	3.7	20.6	20.8
싱가포르	3.8	3.9	5.1	8.7	16.7	12.0
태국	3.5	3.9	4.2	8.0	23.7	24.1

자료원 : WTA

주 : 1.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싱가포르는 1999-2003, 태국은 1998- 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

(2) 한-중 경쟁 관계

□ 한-중 경합 품목¹⁾ 수 빠르게 증가

1) HS 4단위 기준, 수출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을 대상으로 한국, 중국의 대 ASEAN 수출 품목 중 중복되는 품목 의미

-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ASEAN 주요 5개국에 대한 수출 품목 중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수는 태국을 제외하고 급격히 감소한 반면, 중국은 빠르게 증가하여 ASEAN 수출 시장 잠식 심화
- 특히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우리 나라의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50% 감소한 반면, 중국은 무려 114.3% 증가하여 격차 심화
- 이 중 경합 품목 수는 필리핀을 제외하고 증가하였는바, 우리의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은 감소한 반면, 중국과의 경합 품목은 증가함에 따라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 중 중국과의 경합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필리핀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
- 특히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에서는 절반 이상 품목이 중국과 경합

< 한국, 중국의 대ASEAN 천만불 이상 수출 품목 및 경합품목 수 >

(단위 : 개, %)

	한국(A)		중국(B)		경합품목 수 (C)		경합 품목 비중 (C/A)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인니	58	29(-50)	21	45(114.3)	3	8(166.7)	5.2	27.6
말련	45	45(0)	42	81(92.9)	16	24(50)	35.6	53.3
싱가포르	47	41(-12.8)	80	134(67.5)	24	30(25)	51.1	73.2
태국	37	57(54.1)	42	97(130.9)	12	33(175)	32.4	57.9
필리핀	34	25(-26.5)	16	21(31.3)	7	5(-28.6)	20.6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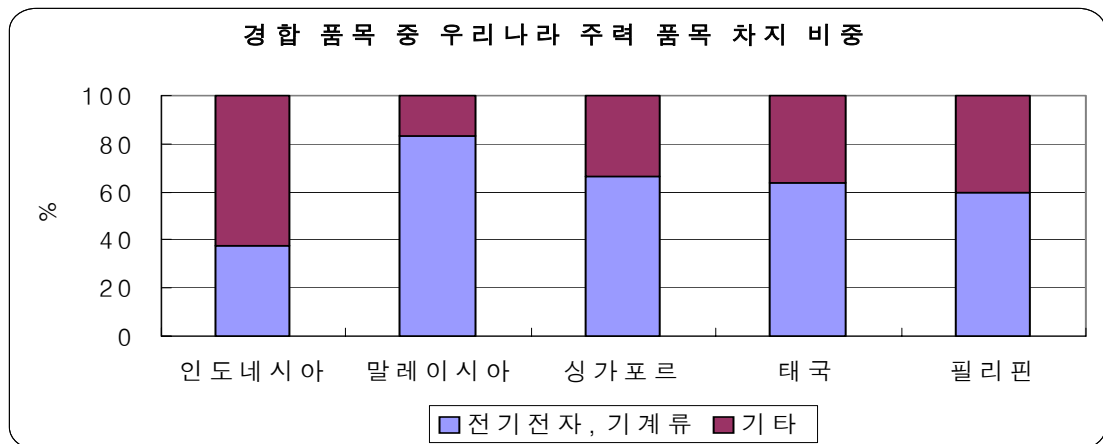
자료원 : WTA

주 : 1. 괄호 안은 증감율

2.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싱가포르는 1999-2003, 태국은 1998- 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

□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전기·전자, 기계류에서 경쟁적 요소 큼

-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경합 품목 중 전기·전자(HS CODE : 85), 기계류(HS CODE : 84)가 차지하는 비중이 83.3%로 매우 큼



자료원 : WTA

- 한편 우리나라가 아세안 시장 점유율 상 우위를 보이던 품목 중 중국에 역전 당한 품목 비중이 큰 것도 문제
- 즉, 우리나라가 우위를 보이던 상품에 대한 중국 상품의 대체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

< ASEAN 시장에서 한중 경합 품목 중 시장 점유율 변동 비중 >

	한국제품 시장 점유율 감소 품목 비중*	중국제품 점유율 증가 품목 비중**
인니	37.5%	66.7%
말련	16.7%	75%
싱가포르	46.7%	85.7%
태국	27.3%	88.9%
필리핀	0%	0%

자료원 : WTA

주 : * 한-중 경합 품목 중 우리나라의 제품의 시장 점유율 감소 품목 비중
 ** 우리나라 제품의 시장 점유율 감소 품목 중 중국 제품의 점유율 증가 품목 비중

- 조사 기간 동안, 한-중 경합품목 중 우리나라의 ASEAN 주요 5개국 수입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4개에서 9개로 1.25배 증가한데 불과한 반면, 중국의 수입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0개에서 16개로 급격히 증가

(2) 한-일 경쟁 관계

□ 한-일 경합 품목²⁾ 수 감소, 경합 품목 비중은 보합

-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최근 5년간 우리나라와 일본의 ASEAN 주요 5개국에 대한 수출 품목 중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수는 태국을 제외하고 급격히 감소. 이에 따라, 일본의 수출액 규모는 중국에 비해 아직은 앞서고 있으나, 점차 그 격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양국의 천만불 이상 수출 품목 수 감소에 따라, 경합 품목 수도 태국, 말레이시아를 제외하고 감소
 - 특히 인도네시아는 경합 품목 수가 58.9% 감소
- 그러나, 우리나라의 천만 불 이상 수출 품목 중 일본과의 경합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바, 한-일간 경쟁 관계는 수출 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여전히 치열함을 알 수 있음
 - 특히, 싱가포르에서는 우리나라의 천만불 이상 수출 품목 중 90%가 일본산 제품과 경합 중

< 한국, 일본의 대ASEAN 천만불 이상 수출 품목 및 경합품목 수 >

(단위 : 개, %)

	한국(A)		일본(B)		경합품목 수 (C)		경합 품목 비중 (C/A)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1997	2002
인니	58	29(-50)	147	87(-40.8)	39	16(-58.9)	67.2	55.2
말련	45	45(0)	206	168(-18.4)	39	39(0)	86.7	86.7
싱가포르	47	41(-12.8)	195	181(-7.2)	42	37(-11.9)	89.4	90.2
태국	37	57(54.1)	160	225(40.6)	31	50(61.3)	83.8	87.7
필리핀	34	25(-26.5)	86	68(-20.9)	22	13(-40.9)	64.7	52.0

자료원 : WTA

주 : 1. 괄호 안은 증감율

2.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싱가포르는 1999-2003, 태국은 1998- 2003년 기간을 대상으로 조사

2) HS 4단위 기준, 대 ASEAN 주요 5개국 수출액이 천만 달러 이상인 품목 중 한국, 일본의 중복 수출 품목

□ 주로 전기·전자, 기계류, 자동차에서 경쟁

- 중국에 비해 경합 품목이 편중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대ASEAN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 중 거의 전 품목에 걸쳐 일본 제품과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일 경합 품목별 비중 >

(단위 : %)

국가명	품목명	비중
인니	플라스틱	25
	철강	25
	기계류	12.5
	자동차류	12.5
말련	플라스틱	12.8
	철강	7.7
	전기전자, 기계류	51.4
	자동차류	5.1
싱가포르	철강	8.1
	전기전자, 기계류	54
	자동차류	5.4
태국	플라스틱	18
	철강	8
	전기전자, 기계류	46
필리핀	전기전자, 기계류	46.2
	자동차류	7.7

자료원 : WTA

□ 특히 일본은 주요 ASEAN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출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자동차 분야의 최대 수출국

- 우리나라의 주요 ASEAN 국가별 자동차(HS : 8703) 수출 동향을 보면, 태국에서는 '98~'03 5년간 4,142.9%, 말레이시아에서는 '97~'02 5년간 365.9%, 싱가포르에서는 '99~'03 4년간 304.4% 증가

- 태국 : ('98)14만 불 → ('01)496만 불 → ('03) 594만 불
 - 말레이시아 : ('97) 1,838만 불 → ('00) 2,499만 불 → ('02) 8,656만 불
 - 싱가포르 : ('99) 2,127만 불 → ('01) 7,594만 불 → ('03) 8,601만 불
- 일본의 주요 ASEAN 국별 자동차 수출 규모는 우리나라의 7~12배에 달하며,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수입 자동차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 중

< 한-일 자동차(HS:8703) 수출액 및 점유율 비교 >

(단위 : 백만불, %)

	한국		일본	
	수출액	점유율	수출액	점유율
말레이시아(2002년)	86.6	9.2	721.6	76.4
싱가포르(2003년)	86.01	7.3	666.028	56.5
태국(2003년)	5.9	1.5	73.8	18.9

자료원 : WTA

- 또한 한-일 경합 품목 중 일본의 ASEAN 각국 수입 시장 1위 품목 수는 약간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와의 격차는 큰 것으로 나타남

< 한-일 경합 품목 중 아세안 주요국 시장 1위인 품목 수 >

	한국		일본	
	1997	2002	1997	2002
인니	1	1	10	9
말련	0	4	20	17
싱가포르	1	2	15	11
태국	0	1	38	34
필리핀	1	1	9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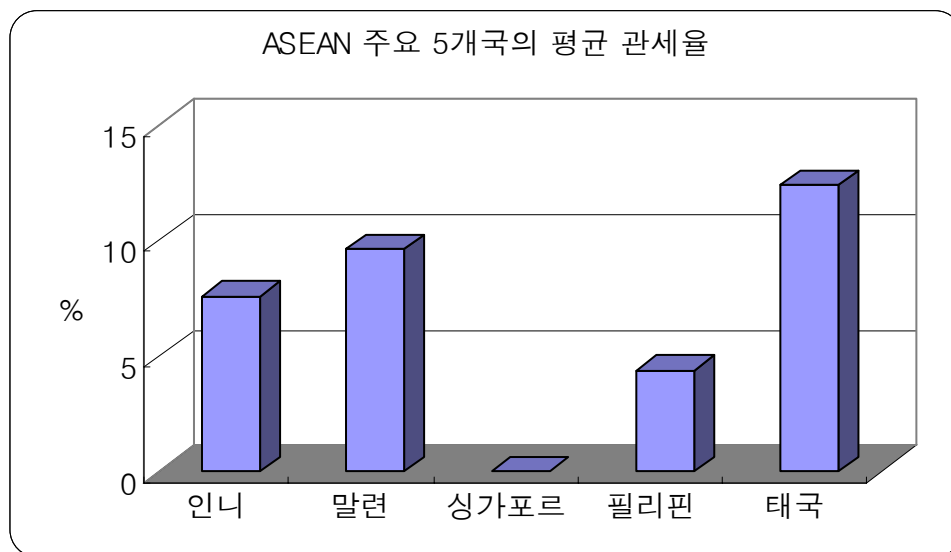
자료원 : WTA

주 : 통계 부족으로 싱가포르는 '99-'03, 태국은 '98- '03년 기간 대상 조사

2. 일본, 중국과 ASEAN의 FTA 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1) ASEAN 주요국의 관세 부과 현황

- HS 4단위 기준, 우리나라 ASEAN 주요 5개국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의 단순 평균 관세율을 살펴보면, 태국의 관세율이 12.4%로 가장 높고, 말레이시아(9.6%), 인도네시아(7.6%), 필리핀(4.4%), 싱가포르(0%) 순



자료원 : ASEAN 사무국

- 10% 이상 고관세 부과 품목 비중 역시 태국(47.7%), 말레이시아(28.8%), 인도네시아(24.1%) 순

< ASEAN 주요 5개국 10% 이상 고관세 부과 품목 비중 >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태국
10% 이상 관세 부과 품목 비중	24.1%	28.8%	0.0%	8.0%	47.4%

자료원 : ASEAN 사무국

□ 자동차, 철강 및 철강 제품, 플라스틱 제품 등 우리의 수출 품목에 높은 관세 부여

○ 특히, ASEAN 국가는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에 높은 관세 부과

- 말레이시아는 자동차(HS : 8703)에 무려 평균 103.6%의 초고관세 부과, 인도네시아는 평균 46.7%, 태국은 평균 59.04%의 관세 부과

□ 한편,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 중 하나인 IT 제품은 거의 무관세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은 WTO 정보통신협정 (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회원국으로, 컴퓨터, 반도체 등에 관세를 부여하지 않고 있음

< ASEAN 주요 5개국 10% 이상 고관세 부과 품목 >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HS CODE (4단위)	품목명	우리나라의 해당국 수출액	평균관세율
인도네시아	3920	플라스틱판	12.5	14.7
	5407	합성장섬유사 직물	35.7	13.4
	5903	방직용 섬유	25.6	10
	6002	메리야스편물	15.4	10
	7210	철강판(도금한 것)	37.1	15
	7607	알루미늄박 (두께 0.2mm 이하)	13.2	12.8
	8528	영상기기	12.5	15
	8703	자동차	14.9	46.7
	8708	자동차부품	18.9	15
말레이시아	3901	에틸렌 중합체	10.9	12.4
	3920	플라스틱판	12.8	24.6
	3926	기타플라스틱제품	13.0	13.3
	7020	기타유리제품	19.4	30
	7408	동선	36.4	10
	7607	알루미늄박	11.4	28.8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18.2	16.1
	8418	냉장고	17.0	30

	8516	난방및전열기기	32.7	22.3
	8518	마이크로폰	10.8	14.5
	8529	무선송수신기기	121.8	11.4
	8536	전기회로기기	15.1	15.5
	8703	자동차	86.6	103.6
	8708	자동차부품	16.2	20.7
필리핀	3923	플라스틱 컨테이너	12.2	11.4
	8702	수송용 자동차	31.6	11.6
태국	3901	에틸렌 중합체	11.8	20
	3902	프로필렌 중합체	10.7	20
	3903	스티렌의 중합체	45.6	20
	3907	아세탈수지	36.3	20
	3909	페놀수지	10.1	17
	3920	플라스틱판	14.9	20
	3921	플라스틱판 (셀룰라가아닌것)	31.5	25.8
	3923	플라스틱컨테이너	10.6	26.4
	3926	기타플라스틱제품	24.3	30
	4002	합성고무	19.2	11.7
	5210	면직물	12.1	20
	5407	합성장섬유사 직물	25.9	20
	5902	타이어코드 직물	12.0	13.3
	7208	철강판(열간압연한 것)	22.9	10
	7209	철강판(냉간압연한 것)	17.5	12
	7210	철강판(도금한 것)	91.3	13.7
	7326	철강제기타제품	29.5	20
	7408	동선	25.8	20
	7606	알루미늄 판	15.9	10
	7607	알루미늄박	14.7	10
	8207	기계용 공구	11.7	20
	8414	기체또는진공펌프	21.6	16.2
	8415	공기조절기	10.7	28.3
	8450	세탁기	20.8	26.7
	8504	변압기	24.5	18.5
	8528	영상기기	82.2	20
	8531	전기식음향기기	40.9	17
	8536	전기회로기기	25.1	10
	8540	열전자관	207.9	10.2
	8544	전선	21.3	18.5
	8708	자동차부품	39.2	39.9

자료원 : ASEAN 사무국

주 : 1. 우리나라의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율

2. 단순 평균 관세율

3. 인니, 말런, 필리핀의 수출액은 2002년 통계, 싱가포르, 태국의 수출액은 2003년 통계

(2) 일본, 중국과 ASEAN의 FTA 체결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 ASEAN 지역의 FTA 확산 시, 대 ASEAN 수출 타격이 클 전망

- ASEAN 자유무역지대가 중국, 일본 등으로 확대될 경우, 동남아 시장에서 이들 주요 경쟁국 상품의 수출 경쟁력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역외국 상품인 한국 상품의 대 ASEAN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전망
- 특히 우리나라의 천만 불 이상 수출 품목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이 높고, 중국 및 일본과의 경합 상품 비중이 높은 태국, 말레이시아 시장 상실이 클 전망
- 이 중 일본은 우리나라와 ASEAN 시장에서 중국에 비해 경쟁 관계가 더 치열할 뿐 아니라, 일본 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에 비해 경쟁 우위에 있어 ASEAN-일 FTA 체결 시, 타격이 클 전망
- 말레이시아에서 한-중, 한-일 경합 품목 비중 : (한-중 경합품목 비중) 53.3%, (한-일 경합 품목 비중) 86.7%
- 태국에서 한-중, 한-일 경합 품목 비중 : (한-중 경합품목 비중) 57.9%, (한-일 경합품목 비중) 87.7%
- ASEAN 주요 5개국에서 시장에서 한-일 경합 품목 중 일본 제품의 수입 시장 점유율 1위인 품목 비중 : 50.3%
- 또한 ASEAN 주요국에서 10%이상 고관세 품목 중 일본과의 경합 품목 비중이 높고, 일본의 수출액은 대부분 우리나라를 앞서고 있음
- 태국에서 24개 품목 중 4개 품목, 말레이시아에서 11개 품목 중 1개 품목만이 우리나라 수출액이 일본 수출액을 앞선 상태

<ASEAN 주요 5개국 10% 이상 고관세 품목 중 일본과의 경합 품목 >

(단위 : 백만불, %)

국가명	HS	품목명	우리나라의 수출액	일본의 수출액	평균관세율
태국	3901	에틸렌 중합체	11.8	33.3	20
	3902	프로필렌 중합체	10.7	44.7	20
	3903	스티렌의 중합체	45.6	60.9	20
	3907	아세탈 수지	36.3	118.1	20
	3909	페놀수지	10.1	31.9	17
	3920	플라스틱판	14.9	58.7	20
	3921	플라스틱판 (셀룰라가 아닌 것)	31.5	69.6	25.8
	3923	플라스틱컨테이너	10.6	52.5	26.4
	3926	기타플라스틱제품	24.3	335	30
	4002	합성고무	19.2	61.2	11.7
	5407	합성장섬유사 직물	25.9	23.7	20
	7208	철강판(열간압연한 것)	22.9	619.9	10
	7209	철강판(냉간압연한 것)	17.5	200.4	12
	7210	철강판(도금한 것)	91.3	337.1	13.7
	7326	철강기타제품	29.5	373.7	20
	7408	동선	25.8	10.1	20
	7606	알루미늄판	15.9	71.8	10
	7607	알루미늄 박	14.7	44.9	10
	8207	기계용 공구	11.7	190.3	20
	8414	기체또는진공펌프	21.6	176.9	16.2
	8415	공기조절기	10.7	26.8	28.3
	8504	변압기	24.5	83.9	18.5
	8528	영상기기	82.2	28.1	20
	8531	전기식음향기기	40.9	80.3	17
	8540	열전자관	207.9	68.3	10.2
	8544	전선	21.3	78.2	18.5
	8708	자동차부품	39.2	1466.2	39.9
말련	3901	에틸렌 중합체	10.9	21.1	12.4
	3920	플라스틱 판	12.8	50.8	24.6
	3926	기타플라스틱제품	13	142.9	13.3
	7408	동선	36.4	19.9	10
	7607	알루미늄 박	11.4	18.5	28.8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18.2	112.2	16.1
	8518	마이크로폰	10.8	16.7	14.5
	8529	무선송수신기기	121.8	182.2	11.4
	8536	전기회로기기	15.1	207.5	15.5
	8703	자동차	86.6	721.6	103.6
	8708	자동차부품	16.2	83.4	20.7
인니	3920	플라스틱판	12.5	13.8	14.7
	7210	철강판(도금)	37.1	52.8	15
	8703	자동차	14.9	22.9	46.7
	8708	자동차부품	18.9	575.1	15
필리핀	3923	플라스틱 컨테이너	12.2	17.1	11.4
	8702	수송용 자동차	31.6	191.5	11.6

자료원 : ASEAN 사무국, WTA

주 :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에 대한 단순 평균 관세율

□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직접적 타격 전망

- ASEAN은 자국 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해 완성차에 대한 고관세는 물론 수입 허가제 등 각종 비관세 장벽을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우리나라의 대 ASEAN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최근 급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완성차 업체는 주요 ASEAN 국가들에서 자체 조립기지를 구축하거나 현지 업체와 합작으로 조립 업체를 설립하는 등 현지에도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음
- 그러나 중국과 일본이 ASEAN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나라의 대 ASEAN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은 직접적 타격 불가피
- 중국의 대 ASEAN 자동차 수출은 아직 미미하나, 최근 수출액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를 빠르게 추격하고 있고, 일본은 ASEAN 주요국 자동차 및 부품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는 등 우리보다 경쟁 우위에 있는 상황
- 최근 3년간('01~'03) 중국 자동차의 대 태국('00~'02) 수출 증가율 : 6,150%, 대 필리핀('00~'02) 수출 증가율 : 2,066.5%, 대 말레이시아 수출 증가율 : 90.8%
- 특히, 말레이시아에서는 중국의 수출액이 61억불로 우리나라(42억불)보다 훨씬 앞선 상태
- 또한, 일본은 태국을 제외한 4개국 수입 자동차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 ASEAN 시장을 선점하고 있음

□ 가전제품, 석유화학 분야, 섬유 식물 분야의 피해도 전망됨

-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 온 냉장고(말레이시아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11.7% 증가), 세탁기(태국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25.9% 증가), 플라스틱 제품 등의 피해 예상

□ 반면 무선통신기기, 컴퓨터, 반도체 등 IT 제품은 비관세 장벽 인하 및 철폐에 따른 피해 전망

○ IT 제품은 주요 ASEAN 국가가 WTO ITA 협정에 가입함에 따라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따른 피해는 없음

○ 단, 최근 FTA 협정 내용이 초기 관세 인하 및 철폐에 대한 내용 위주에서 세관통관절차의 원활화, 상호인정협정 등을 포괄하는 등 확대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경우, 중국 혹은 일본이 ASEAN과 FTA 체결 시, 규제 비용 감소 및 통관 신속화에 따른 교역 증대 예상

- OECD에 따르면, 무역 거래 비용은 총 교역 가치의 2 ~ 15%를 차지

V. 대응 전략

1. 대응 필요성

□ ASEAN, 새로운 거대 시장으로 부각

○ ASEAN은 역내 경제의 고도 성장으로, 세계 경제의 주요 성장 엔진으로 부각될 전망인바, SOC 확충 및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자본재, 시설재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전망

○ 이에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하고 있는 ASEAN 국가와의 경제 협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

□ 동아시아 시장에서 고립 우려

○ 중국, 일본, 인도는 ASEAN과의 FTA 체결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늦은 한국도 ASEAN과의 FTA 체결을 서둘러야 함

- 특히 한일 FTA 난항 시, 일본은 한국과의 FTA 체결을 포기하고 ASEAN과의 체결 교섭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후카가와 유키코 일본 동경대 교수)인바,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1~2년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으므로 FTA 문제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이 필요

□ ASEAN 시장 상실 예방

- ASEAN은 아직 ASEAN 차원에서 체결한 역외 FTA는 전무한 상황이나, 역내 AFTA 시행으로 인한 우리의 ASEAN 시장 상실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
 - 베트남에서 역시 역내국에만 적용되는 낮은 관세(역내국 : 20%, 역외국 : 40~50%)로 우리나라 제지품의 수출 경쟁력은 완전히 상실되어 수출 감소 전망
- ASEAN이 중국, 일본 등 우리의 경쟁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우리 제품 경쟁력의 급속한 악화가 우려됨

2. 대응 전략

(1) 한-ASEAN FTA 체결 추진

- 인도,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들이 ASEAN 과의 FTA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ASEAN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을 유지 혹은 증대시키고, FTA 체결국으로서 위상 구축을 위해서는 FTA 체결 추진 필요
 - 정부차원에서는 지난 3월 8일, FTA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시작
- ASEAN과 FTA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되, 구체적 협상 과정에서 각 산업 분야별로 관련단체 및 업계, 학계의 의견을 수렴, 협상 포지션을 설정해야 함

- ASEAN과 FTA 추진 시, 우리에게 유리한 분야는 동남아 각국에서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거나,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 분야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가전, 석유화학분야 등임
- 반면, 우리의 비교 열위 분야인 동시에 우리가 높은 관세율(대ASEAN 농산물 관세율 : 82.6%, 수산물 관세율 : 21%)을 부과하고 있는 농산물, 수산물 분야는 우리에게 불리한바, 민감 분야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거나 예외를 두는 등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
- 말레이시아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AFTA 역내에서도 관세율 인하 유예

(2) ASEAN 현지 투자 확대

☐ AFTA의 무역 장벽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 필요

- 역내AFTA 현지 투자를 통해 부품 및 원부자재의 대 ASEAN 수출 확대 도모 가능
- 뿐만 아니라, 2개 이상 ASEAN 국가에 진출한 국가는 AFTA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대우를 회피하면서, 역내 진출 가능

☐ FTA 협정 내용 확대

- 우리 기업의 전략적 대 ASEAN 투자 진출 확대를 위해서 아세안과의 FTA 협상은 일반적 관세 장벽 철폐 뿐 아니라, 각종 수입규제, 수입 금지 등 비관세 장벽 철폐는 물론 우리 기업들의 투자 진출 및 현지 영업 여건 개선에도 주안점을 두어야 함

(3) 전략 수출 상품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수출 확대

- 우리나라의 대 ASEAN 주요 5개국 천만 달러 이상 수출 품목 중 일본과의 경합이 특히 치열한 반면(경합 품목 비중 : 52%~90.2%), 중국과 경합하는 품목 비중은 최근 급격히 증가
- 한류 열풍 등 ASEAN 시장에서 우리 나라만의 경쟁력을 갖고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전략 수출 상품 발굴 및 육성이 시급한 시점

(4)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 대 ASEAN 전기·전자 제품, 자동차 및 부품 수출 시, 우리나라의 대 ASEAN 수출 업체는 현지 진출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에 직면하게 되는데, 현지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의 기술 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함